

# 취업모의 보육서비스 이용만족도 및 개선에 대한 연구

- 직장보육시설과 비직장보육시설 이용자의 비교 -

Satisfaction Levels and Needs of Employed Mothers Using Different Child Day Care Centers

중앙대학교 가정학과  
박사과정 김 효 민  
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조 교수 박 정 윤  
교 수 김 양 희

Dept. of Home economics, Chung-Ang Univ.  
Graduate Student, Ph.D. Course : Kim, Hyo-Min  
Dept. of Family Welfare, Chung-Ang Univ.  
Associate Professor : Park, Jung Yun  
Professor : Kim, Yang Hee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론 및 제언 |
| 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working mothers' satisfaction with child day care service between those using child care centers in their workplace and those using child care centers close to their houses. their demand for better child care service was also assessed. The study findings can be used as basic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alternative solutions and developing child day care programs able to meet the different needs of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The results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atisfaction levels associated with the quality of child day care centers (programs and safety) between the two group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satisfaction levels associated with demographic factors. Secondly, while working mothers using child care centers in their workplace were most concerned with the quality of the center, the other group of working mothers was most concerned with the distance between their houses and the child care centers. Thirdly, both groups preferred the idea that the government make child care subsidies. Thus study results suggest the need for establishing systematic efforts to increase child care services in workplaces and communities and eventually support working mothers.

Corresponding Author: Park, Jung Yun, Dept. of Family Welfare, Chung-Ang Univ. Heukseok-dong, Dongjak-gu, Seoul, Korea Tel: 82-2-599-3301  
Fax: 82-2-599-3383 E-mail: pjy4838@cau.ac.kr

**주제어(Key Words):** 취업모(employed mother), 직장보육서비스(employer supported child-care service), 비직장보육서비스(child-care service)

## I. 서론

### 1. 문제제기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져가고 있으며, 취업 여성 인구도 급격히 증대되었다. 2004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50%로 전년도에 비해 약 10% 증가하였다(통계청, 2005). 고학력 여성의 사회진출, 시간제, 파견제등과 같은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으로 여성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결혼연령의 상승, 출산율의 감소, 가사분담의 경감 등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4세에 약 63%를 보이다가, 결혼과 출산을 하는 25세~29세와 30세~34세에서는 각각 약 64%와 약 50%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35세 이후에 다시 증가하여 40세~44세에 약 65%로 가장 높은 경제활동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다(통계청, 2005). 여성 경제활동 참여의 변화는 경제발전이나 교육수준 향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연령별 추이를 보면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여성의 취업증가와 함께 부모가 자녀에게 헌신하는 전통적인 가족윤리관의 변화에 따라 양육은 가족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로 보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인력의 효율적인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가사와 육아, 직업 등의 여러 역할을 담당하는 기혼취업 여성과 맞벌이 가정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요구되며, 기혼취업여성이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통해 직업에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 기업에서 제공하는 가족지원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현재 기혼 취업여성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보육제도, 산전 산후휴가, 유급 수유시간, 육아휴직제도 및 직장수유시설의 설치 등을 들 수 있으나, 현실적 적용이 미미하다. 2005년도 여성가족부의 통계 분석에 따르면, 전국 보육시설은 국·공립 보육시설 106,443개소, 법인보육시설 130,909개소, 민간보육시설 595,092개소, 부모협동보육시설 690개소, 가정보육시설 126,740개소, 직장보육시설 12,517개소가 있으며, 보육 수요 아동수에 대한 보육시설 수요를 40%를 못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여성가족부, 2005).

특히 직장보육시설은 정부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의 근거(1987)하여 설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영유아보육법'(1991)에서 상시 여성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보건복지부(2005)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국공립이나 민간시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육시설관련 선행연구에서 직장보육시설의 연구는 최근 몇 년간 증가하고 있으나 부족한 실정이며, 김현주(2004)와 이정아(2005)의 연구에서 양육의 어려움과 보육의 필요성과의 관련성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직장보육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요구도가 높을 뿐 아니라 다른 보육시설 이용보다 더 높은 만족감을 갖는다고 김현주(2004)의 연구에서 보고하였다. 또, 정순자(1994)의 연구에서 사업주 입장에서 장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인력 수급의 안정 및 노사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취업모에게는 취업 결정에 도움이 되며, 양육비 부담이 적고 편리하고 자녀가 일하는 장소에서 보호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국의 연구에서 살펴보면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부모가 갖고 있는 태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Schiller, 1982). Schiller(1982)는 직장보육에 대한 태도는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서 차이를 나타낸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서비스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보육서비스 양적 부족에 대한 지적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질적 측면에서 운영실태, 이용자의 만족도, 교육프로그램 유형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보육시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분석한 연구들은 있지만, 각 유형별 시설을 비교한 연구가 적으며, 특히 민간보육시설과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이용만족도, 보육정책에 대한 인식과 개선점을 정책과 연계하는 연구들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장보육시설 이용 취업모와 비직장보육시설 이용 취업모간의 보육시설의 이용실태를 비교하고, 보육정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의 대안마련과 수요자의 특성별 차별화된 보육서비스 프로그램 개발하고, 보육서비스 향상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조사대상자들의 보육시설 이용 현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보육시설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직장 및 비직장 보육시설 이용자의 보육정책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 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직장보육시설 취업모 120명과 비직장보육시설 취업모 13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조사 대상 선정은 다음과 같다.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의 선정은 2002년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장 명단을 기초로 하여 서울시내에 위치한 직장보육시설 67개소 중에 조사에 협조한 병원 2곳, 구청 3곳의 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 120명을 선정하였다.

직장 내 보육시설이 없는 곳에서 일하는 기혼여성으로 자녀를 민간, 국 공립 시설에 맡기고 있는 국 공립어린이집 2곳과 S기업 산하기관 1곳의 취업모 130명을 선정하였다.

#### 2) 조사기간 및 자료수집

2002년 10월 25일 30부의 예비조사 후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2002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조사 실시하였다. 총 250부를 배부하여 그 중 200부를 수거하여 회수율은 80%였다. 수거된 200부의 설문지 중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94부, 민간, 국 공립시설 이용자 106부를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문제를 검증할 위한 변인으로는 사회 인구학적 변인, 보육이용실태관련 변인, 보육시설 이용만족도 변인, 육아정책 관련 변인으로 유목화하여 구성하였다. 사용된 측정도구는 고혜승(2001)과 김경륜(1998)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기초로 하여 구성하였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 보완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 1) 사회 인구학적 변인

사회 인구학적 변인은 선행연구(고혜승, 2001; 김경륜, 1998)를 기초로 하여, 총 7개 문항으로 연령, 성별, 학력, 직업, 가족형태, 월수입, 자녀의 연령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 2) 보육시설 이용실태

본 척도는 고혜승(2001)과 김경륜(1998)의 설문지를 기초로 하였으며,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유형 및 이용시간, 이용이유에 대한 질문으로 3문항을 구성하였다.

#### 3) 보육시설 이용만족도

보육시설 만족에 대한 척도는 고혜승(2001)과 김경륜(1998)의 설문지를 기초로 하였으며, 보육시설 만족도, 이용시간 만족도, 프로그램 만족도, 보육환경 만족도, 비용 만족도, 배우자의 만족도, 본인의 만족도, 업무효율 만족도, 가정과 기관과의 연계성에 대한 만족도로 총 19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보육시설 이용만족도가 높다.

#### 4) 육아정책 및 요구도

본 척도는 고혜승(2001)과 김경륜(1998)의 설문지를 기초로 하였으며, 보육을 원하는 시기, 시설 선택의 중요도, 시설의 위치, 이용적정시간, 비용부담주체, 육아휴직제도 이용여부 및 이용대상, 가정보육모에 대한 의견, 가족복지사에 대한 의견 등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3. 자료 분석 방법

질문지 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는 SPSS PC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사항을 위한 빈도분석, 백분율, 교차분석, 집단간 비교를 위해 t-test, ANOVA를 실시하였다.

〈표 1〉 변인별 질문지 구성 내용

구 분	질문지 내용	문항수
사회 인구학적 변인	연령, 성별, 학력, 직업, 가족형태, 수입, 자녀의 연령	7
보육시설 이용현황 변인	보육시설 유형, 보육시설 이용시간, 보육시설이용이유	3
보육시설 이용만족도	시설 만족도, 이용시간 만족도, 프로그램 만족도 보육환경 만족도, 비용 만족도, 배우자의 만족도 본인의 만족도, 업무효율 만족도 가정과 기관과의 연계성에 대한 만족도(각 문항은 1~5점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됨)	19
육아정책 및 요구도	보육을 원하는 시기, 시설 선택의 중요도 시설의 위치, 이용 적정시간, 비용부담 주체 육아휴직제도 이용여부 및 이용대상 가정보육모 및 가정복지사에 대한 의견	12
계		41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연령별로 보면 직장보육시설 이용 취업모는 32세 이하가 41.5%로 가장 많았고, 비직장보육시설 이용 취업모는 36세 이상이 40.6%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은 직장보육시설 이용 취업모의 경우 대졸이 45.8%, 전문대졸이 36.1%로 나타났고, 비직장보육시설 이용 취업모는 대졸이 39.6%로 다음으로 고졸이 36.7%로 나타났다. 대학원졸 이상이 직장보육시설 이용 취업모는 1.1%, 비직장보육시설 이용 취업모는 7.5% 나타났다.

취업모의 직업은 직장보육시설 이용 취업모는 관리직이 5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장보육비시설 이용 취업모는 전문직이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족 구성 형태에 있어서는 직장보육시설 이용 취업모와 비직장보육시설 이용 취업모 모두 '부부+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각각 85.1%와 77.4%로 높게 나타났다.

가정의 총 월평균 소득은 직장보육시설 이용 취업모와 비직장보육시설 이용 취업모 모두 300만원 이상의 소득에 46.8%, 45.3%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조사대상자의 경우 직장보육 시설 이용자의 특성을 정리하면 32세 이하의 대졸 학력을 가진 관리직 취업모가 다수였으며, 비직장보육시설 이용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36세 이상의 연령으로 대졸 학력의 전문직 취업여성이 많았으며, 이들 모두 핵가족의 가족형태를 취하며, 300만원 이상의 월수입을 나타냈다.

III.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들의 보육시설 이용 현황은 어떠한가?

조사대상자들이 이용하는 보육시설의 이용시간 현황을 살펴본 결과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이용횟수가 주당 평균이 5.3일이었다. 일일 이용시간을 보면, 평균 9.11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직장보육시설 이용 취업모의 보육시설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일주일에 평균 5.27일을 이용 직장보육시설 이용자와 큰 차이는 없었다.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10.03시간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직장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들에 비해 자녀를 데리고 오가는 시간이 추가된 차이로 보여진다.

조사대상자들이 이용하는 보육시설의 이용시간 현황을 살펴본 결과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유는 '자녀가 가까이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42.6%로 가장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간이 절약된다' 19.1%, '다른 보육시설보다 교육을 더 잘해준다' 18.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거리에 보육시설이 위치함으로써 취업모들이 자녀의 보호 및 비상시 대처 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비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보육비 부담이 적다'와 '다른 보육시설보다 보호를 더 잘해준다' 23.6%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가 가까이 있다'는 의견도 22.6%로 나타났다.

비직장보육시설 이용자의 경우 직장시설 이용이 제한됨으로 불가피하게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그런 경우 보육의 안전성과 보육시 부담요소를 고려한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보육시설과 비

<표 2>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변 인	구 분	직장시설 N(%)	비직장시설 N(%)
연 령	32세 이하	39(41.5)	28(26.4)
	33세 이상~35세 이하	33(35.1)	35(33.0)
	36세 이상	22(23.4)	43(40.6)
학 령	고졸	16(17.0)	39(36.7)
	전문대졸	34(36.1)	15(14.2)
	대졸	43(45.8)	42(39.6)
	대학원졸 이상	1( 1.1)	8( 7.5)
직 업	전문직	32(34.0)	39(36.8)
	관리직	55(58.5)	23(21.7)
	사무직	0( 0.0)	2( 1.9)
	단순노무직	0( 0.0)	3( 2.8)
	기술직	2( 2.1)	13(12.3)
	영업직	1( 1.1)	7( 6.6)
	자영업	1( 1.1)	3( 2.8)
기타	3( 3.2)	16(15.1)	
가족구성	부부+자녀	80(85.1)	82(77.4)
	부부+자녀+시부모	8( 8.5)	10( 9.4)
	부부+자녀+친정부모	3( 3.2)	5( 4.7)
	부부+자녀+기타친척	3( 3.2)	6( 5.7)
	기타	0( 0.0)	3( 2.8)
수 입	100만원미만	0( 0.0)	3( 2.8)
	100만원이상~150만원 미만	1( 1.1)	8( 7.5)
	150만원이상~200만원 미만	17(18.1)	13(12.3)
	200만원이상~250만원 미만	15(15.9)	16(15.1)
	250만원이상~300만원 미만	17(18.1)	18(17.0)
	300만원이상	44(46.8)	48(45.3)

<표 3> 보육시설유형별 보육시설 이용시간 현황

문 항 내 용	직장시설	비직장시설
	Mean	Mean
이용일	5.30	5.27
하루 평균 이용시간	9.11	10.03

〈표 4〉 보육시설유형별 보육시설 이용 현황

문항내용		직장시설	비직장시설
		N(%)	N(%)
보육유형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94(100.0)	0( 0.0)
	비직장보육시설 이용자	0( 0.0)	106(100.0)
집과 시설간의 거리	30분 이내	45( 47.9)	68( 64.1)
	30분 이상~1시간 이내	29( 30.9)	25( 23.6)
	1시간이상~1시간 30분이내	13( 13.8)	11( 10.4)
	1시간 30분 이상	7( 7.4)	2( 1.9)
이용이유	보육비 부담이 적다	12( 12.8)	25( 23.6)
	자녀가 가까이 있다	40( 42.6)	24( 22.6)
	다른 보육시설보다 보호를 더 잘해준다	17( 18.1)	25( 23.6)
	다른 보육시설보다 교육을 더 잘해준다	3( 3.2)	16( 15.1)
	시간이 절약된다	18( 19.1)	10( 9.4)
	아이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다	4( 4.2)	6( 5.7)

직장 보육시설 이용자들간에 시설이용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보육시설운영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일 것이다.

2.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보육시설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조사대상자들의 사회 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보육시설 이용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은데, t값에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 인구학적 변인이 보육시설 이용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의 만족도는 다른 보육시설 자체나 개인적 다른 변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연구들이 앞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보육시설 만족도의 결과는 사회 인

구학적 변인에 따른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보육시설까지의 거리, 이용 이유는 보육시설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용하는 시설과 집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보육시설 이용이유에서도 다른 보육시설보다 교육이나 보호의 정도가 더 높을수록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혜승(2001)의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3. 직장 및 비직장 보육시설 이용자의 보육정책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보육서비스 인식 및 요구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두 집단 취업모 모두 자녀가 영아기인 1~3세에서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어 영아기 보육시설이 확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직장보육시설 이용 취업모의 가장 큰 염려는 '보육 시설과 교육의 질' 인 것에 반해 비직장보육시설 이용 취업모는 '집과의 거리가 멀다' 라는 물리적 여건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두 집단 간에 우려사항의 우선순위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보육시설의 적정 위치에 대한 응답은 응답자의 73.4%가 '직장 내' 를 원하고 있어 직장 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보육시설의 희망 이용시간은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이 67.0%로 가장 많았다. 취업모의 직장활동 시간을 고려하는 보육시설 운영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보육비 부담은 '이용자와 경영주(직장)가 공동부담' 이 44.7%, '이용자와 국가가 공동부담' 이 43.6%로 적절하다고 여기고 있어 취업모가 자녀보육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국가 또는 직장과 그 책임을 분담해야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파악 할 수 있다.

〈표 5〉 사회 인구학적 변수와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보육시설만족도

구분	변인	집단	M(SD)	t(F)
사회 인구학적 변수	연령	32세 이하	3.96(0.57)	.695
		33세 이상~35세 이하	4.01(0.55)	
		36세 이상	3.95(0.51)	
	학력	전문대졸 이하	3.88(0.58)	2.290
대졸 이상	4.03(0.50)			
수입	300만원 미만	3.99(0.58)	2.597	
	300만원 이상	3.93(0.50)		
가족구성	부부+자녀	3.94(0.53)	.480	
	부부+자녀+(시부모, 친정부모, 기타 친척)	4.01(0.59)		
보육시설 이용변수	집과 보육시설과의 거리	30분 이내	3.94(0.50)	3.482*
		30분 이상	3.89(0.68)	
이용이유	이용이유	보육비 부담이 적다	3.84(0.49)	3.878*
		다른 보육시설보다 보호를 더 잘해준다	3.97(0.50)	
		다른 보육시설보다 교육을 더 잘해준다.	4.11(0.60)	

\* < .05

〈표 6〉 보육서비스 인식 및 요구도

문항내용		직장시설	비직장시설
		N(%)	N(%)
보육에 적당한 나이	1세~2세	17( 18.1)	22( 20.8)
	3세	42( 44.6)	43( 40.6)
	4세	22( 23.4)	30( 28.3)
	5세~6세	13( 13.8)	11( 10.4)
보육시설 이용시 염려사항	보육시설 이용료가 비쌀 것 같다	3( 3.2)	5( 4.7)
	교사 및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 같다	13( 13.8)	16( 15.1)
	시설수준 떨어질 것 같다	49( 52.1)	14( 13.2)
	집과의 거리가 너무 멀다	14( 14.9)	40( 37.7)
	직장상사와 자녀와의 불이익 기타	6( 6.4) 9( 9.6)	13( 12.3) 18( 17.0)
보육시설 위치에 관한 의견	직장 내	69( 73.4)	30( 28.3)
	직장 근처	16( 17.0)	56( 52.8)
	지정 근처의 보육기관	9( 9.6)	20( 18.9)
보육시설 이용적정 시간	8시간 미만	18( 19.2)	33( 31.1)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63( 67.0)	57( 53.8)
	10시간 이상	13( 13.8)	16( 15.1)
보육비 부담	이용자	2( 2.1)	6( 5.7)
	이용자와 국가가 공동부담	41( 43.6)	67( 63.2)
	이용자와 경영주(직장)가 공동부담	42( 44.7)	28( 26.4)
	경영주(직장)가 전액부담	9( 9.6)	5( 4.7)
보육시설 선택의 중요도	교육내용	16( 17.0)	14( 13.2)
	교사의 자질	31( 43.7)	40( 37.7)
	보육시설	4( 4.3)	8( 7.5)
	영양, 건강, 안전	28( 29.8)	25( 23.6)
	보육비용	1( 1.1)	3( 2.8)
	보육시간 집과 직장과의 거리	2( 2.1) 12( 12.8)	4( 3.8) 12( 11.3)
복지정책의 만족도	만족 한다	4( 4.2)	2( 1.9)
	보통이다	28( 29.8)	28( 26.4)
	불만족 한다.	62( 66.0)	76( 71.7)
보육수당 지급 실태	알고 있고 현 직장에서 시행하고 있다	26( 27.6)	12( 11.3)
	알고 있지 못했으나 보육비가 지급 된다	12( 12.8)	9( 8.5)
	보육비지급도 없으며 전혀 알지 못한다	56( 59.6)	85( 80.2)

또한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응답자들이 보육시설 선택의 우선순위에서 '교사 자질'이 43.7%, 37.7%로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보육의 물리적 환경보다 인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직장시설 이용자와 비직장시설 이용자의 현 복지정책에 관한 의견의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 '불만족 한다' 66.0%, 71.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보육정책이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육수당 지급에 대한 인식도는 직장시설 이용자들이 비직장시설 이용자에 비해 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며 실제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요구도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우선 직장보육 시설 이용자의 직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의 적절성에 대해서 태도의 경향성이 유사하게

〈표 7〉 현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태도

문항내용		직장시설	비직장시설
		N(%)	N(%)
육아휴직 제도 적절성	매우 만족	16( 17.0)	27( 25.5)
	대체로 만족	21( 22.4)	20( 18.9)
	보통이다	37( 39.4)	39( 36.8)
	대체로 불만족	18( 19.1)	19( 17.9)
	매우 불만족	2( 2.1)	1( 0.9)
육아휴직 신청가능성	신청을 하겠다	60( 63.8)	80( 75.5)
	신청하지 않겠다	34( 36.2)	26( 24.5)
육아휴직 신청기간	12개월 미만	20( 21.3)	26( 24.5)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47( 50.0)	64( 60.4)
	24개월 이상	27( 28.7)	16( 15.1)
육아휴직 사용대상	남편	1( 1.1)	1( 0.9)
	아내	88( 93.6)	93( 87.7)
	남편과 아내	5( 5.3)	12( 11.4)
육아휴직 비신청이유	정부의 지원금액이 적어서	9( 9.6)	15( 14.2)
	업무공백으로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	68( 72.3)	66( 62.3)
	인사상 불이익	10( 10.6)	15( 14.1)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므로	7( 7.5)	10( 9.4)
육아휴직 제도의 어려움	정책 반영하여 어려운 점은 없다	15( 16.0)	13( 12.3)
	정책반영은 되지만 불이익에 대한 염려된다	44( 46.8)	22( 20.8)
	일부 정책만 받아들여진다	15( 16.0)	16( 15.1)
	직장에서 현실상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20( 21.2)	55( 51.8)

나타났다. 직장시설이용자의 경우 17.0%, 비직장시설 이용자의 경우 25.5%가 '매우 만족'한다고 여기고 있다. 육아휴직제도의 신청희망정도를 살펴본 결과 직장보육시설 이용자의 경우 63.8%가, 비직장보육시설 이용자는 75.5%가 '신청 하겠다'로 응답하여 육아휴직제도 이용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으로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앞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육아휴직기간은 두 집단 모두 '1년~2년'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육아휴직 신청대상은 '아내'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 육아에 대한 책임은 부부 중 아내에게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 여성의 양육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다.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의 경우 조사대상자 전체가 '업무공백으로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사상의 불이익'과 '정부 지원액이 적어서'라고 응답하였다.

직장 내에서의 육아휴직정책 반영 정도를 살펴본 결과 직장시설이용자의 경우 '정책반영은 되지만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염려 된다'가 46.8%로 나타났으며, '직장에서 현실상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도 21.2%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취업모들은 일에 대한 부담감과 육아정책이 현실적으로 직장에서는 반영되지 않는 점 때문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직장보육시설 이용자는 직장내에서의 육아휴직정책에

〈표 8〉 가정보육모에 대한 의견

문항내용		직장시설	비직장시설
		N(%)	N(%)
가정보육모 제도 찬반	찬성한다	38( 40.4)	39( 36.8)
	반대한다	14( 14.9)	22( 20.8)
	모르겠다	42( 44.7)	45( 42.5)
가정보육모 희망이용 시간	8시간 미만	31( 33.0)	12( 11.3)
	8시간 이상~11시간 미만	56( 59.6)	82( 77.4)
	11시간 이상	7( 7.4)	12( 11.3)
가정보육모에 대한 기대역할	유아 보육	13( 13.8)	21( 19.8)
	유아 보육 + 교육	44( 46.8)	48( 45.3)
	유아 보육 + 가사도움	16( 17.0)	12( 11.3)
	유아 교육 + 가사도움	1( 1.1)	1( 0.9)
	유아 보육 + 교육 + 가사도움	20( 21.3)	24( 22.7)
가정보육모상	어머니처럼 자상하게 보살펴주는 사람	49( 52.1)	53( 50.0)
	육아경험이 많은 사람	17( 18.1)	23( 21.7)
	가정관리 및 유아교육에 지식이 풍부한 사람	22( 23.4)	26( 24.5)
	기타(건강하고 쾌활한 사람, 예능 특기자 등)	6( 6.4)	4( 3.8)

따른 혜택을 이용하는데 어려운 점으로 '직장에서 현실상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가 51.8%로 나타났다. 이것은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보다 비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가 현실적으로 자녀보육의 혜택을 덜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정보육모에 대한 집단간의 비교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가정보육모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직장시설 이용자 및 비직장시설 이용자 모두 가정보육모제도에 대해 '모르겠다' 44.7%, 42.5%였으며, '찬성한다'는 의견도 40.4%, 36.8%로 나타나서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인식은 적지만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

가정보육모를 활용하고자 하는 적정시간은 '8시간 이상~11시간 미만'이 59.6%, 7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정보육모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유아 보육 및 교육'이 46.8%과 45.3%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보육모상에 대한 질문에는 '어머니처럼 자상하게 보살펴 주는 사람'을 52.1%와 50.0%로 각각 높은 비율을 차지였으며, 다음으로 '가정관리 및 유아교육에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23.4%와 24.5%가 차지하였다. 취업으로 인해 자녀의 보육에 대한 불안감으로 보육모가 자신 대신 어머니의 역할을 잘 수행해 주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자녀의 교육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취업모의 이용보육시설유형별 이용 만족도를 살펴보고, 보육정책의 인식정도를 비교 파악하여, 현 보육정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

로 몇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다.

첫째, 직장보육시설 이용자는 시설수준을 염려한 반면, 비직장보육시설 이용자는 집과의 거리를 가장 염려하여 이용시설에 따라서 요구도가 다를 수 있다. 결국 직장시설 이용자는 직장 내 보육시설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를 기대하는 반면 비직장시설 이용자의 경우는 질적인 부분을 생각할 여유보다는 자녀보육과 직장을 병행에 있어서 지장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물리적 거리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음으로 이용시설 유형별 요구도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응답자 모두가 보육이용시설 시간이 8~10시간인 직장 근무시간과 일치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은 기혼 취업여성이 자녀보육과 직장 병행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으로 보육시설 운영이 있어 보육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맞벌이 부부의 보육부담을 감소할 수 있도록 보육정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직장보육시설 이용자와 비직장보육시설 이용자간의 보육시설 이용만족도는 사회 인구학적 변인보다는 시설의 질적 영역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만족도 차이에서 주목해 볼 점은 저렴한 보육비보다는 교육이나 안전의 보장과 같은 보육서비스가 좋을수록 만족스럽다는 결과를 볼 때, 취업모의 경우 자녀에게 투자되는 보육비용이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유사하다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확신이 필요할 것임으로 현재의 유형별 보육시설의 양적 증가 증대에만 치중되지 않고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육비용에 부담에 있어 이용자와 국가가 부담을 선호하였으며, 직장보육시설이용자의 경우 '직장 부담'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비용과 비용충당이

개인비용의 몫인 부분은 현재 우리의 자녀출산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보육료에 대한 부담감은 취업여성의 원치 않는 직업포기를 유도하거나, 자녀출산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에서 직장시설은 사업주에게 직·간접적으로 보육비용을 부담하는 방안들을 강화하여 실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이용자들이 보육수당에 정보 이용에 관심이 많은 점으로도 알 수 있다.

또, 국가 보육정책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에서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는 적절하며, 신청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으며 가정보육모 제도에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자녀양육에 도움을 제공하는 국가 지원책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며, 후속 연구에서 취업모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대책 또한 다양화를 위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위에서 제시한 몇 가지 논의점과 우리나라의 보육현실을 고려해 본 바, 보육정책의 개선 방안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일하는 여성의 자녀양육문제는 더 이상 한 가정의 책임만이 아니며 국가와 기업이 함께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와 기업이 각각도의 가정지원혜택을 마련하며, 보육프로그램의 유형들에 대한 연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기혼 취업여성의 가정과 직장생활 양립을 위해서 직장 내 및 근거리 보육시설 운영을 확충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직장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질 높은 보육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할 뿐만 아니라, 교사의 자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정부에서 제시한 육아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률은 현저하게 낮음으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돌봄노동에 대한 남녀평등적 제도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의 효과성은 검증된 바가 없음으로 제도 효과성 평가가 후속연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서울 지역의 취업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지역적으로 일반화하는 한계점이 있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여성 중에 현재 취업하고 있지 않은 비취업 여성들을 위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또, 직장보육시설과 비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를 비교할 때, 크기, 위치 등의 요인들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른 요인들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제한점을 갖고 있어 후속 연구를 통해 이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최근 돌봄 노동에 적극적인 남성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직장시설을 이용하는 수요가 맞벌이 부모에게만 있지 않고, 남편의 직장의 보육시설 이용하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남성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시켜 보완하고, 각 유형별 취업모의 보육시설 만족도에 대한 질적인 연구 분석됨으로써 보다 실증적인 자료가 확보되어 직장보육시설 및 비직장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및 방안 마련의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고혜승(2001). 취업모의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의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륜(1998). 직장보육 서비스가 취업부모의 다중역할 수행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주(2004). 직장보육시설 이용 만족도가 취업모의 직무성과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국공립 직장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1991). 영유아보육법.
- 여성가족부(2005). 영유아보육법.
- 여성가족부(2005). 보육 시설 현황.
- 이정아(2005). 여성공무원의 직장보육에 대한 욕구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순자(1994).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대구대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0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Schiller, P. J. (1982). Employer/Employee 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responsibility for employee child care programs and benefi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an's University.
- (2005년 11월 23일 접수, 2006년 5월 10일 채택)